



보행자 천국

Paradise for Pedestrians



文昌浩/정회원, 구산대 건축공학과 교수

Moon Changho/Professor, Kunsan National University

언제나 우리 동네에도 보행자가 활보하는 도시와 건축이 가능할까?

오래전 스웨덴 스톡홀름 도심에서 보았던 환상적인 장면이 떠오른다. 젊은 부인이 롤러스케이트를 착용한 채 아기가 태워져있는 유모차를 밀고 도심을 유유히 미끄러져 가는 것이다. 아마도 이 부인은 집에서부터 이러한 상태로 버스나 지하철을 이용하여 도심으로 나왔으며, 자유롭게 쇼핑도 하고, 미술관도 돌아보고, 우아한 레스토랑에서 식사도 하고, 민원 업무도 보고, 다시 이러한 상태로 집으로 돌아갈 것이다.

오래된 도심의 광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대화와 놀이로 시간을 보내고, 거리마다 관광객이 넘쳐난다. 새로 조성된 도심의 광장에는 길거리 농구가 벌어지고, 보행자 전용의 쇼핑몰이 형성되어 활기가 넘친다.

장애없는 보행자 천국의 이 도시 광경을 머리에 떠올릴 때마다 부럽고 기분이 좋아진다.